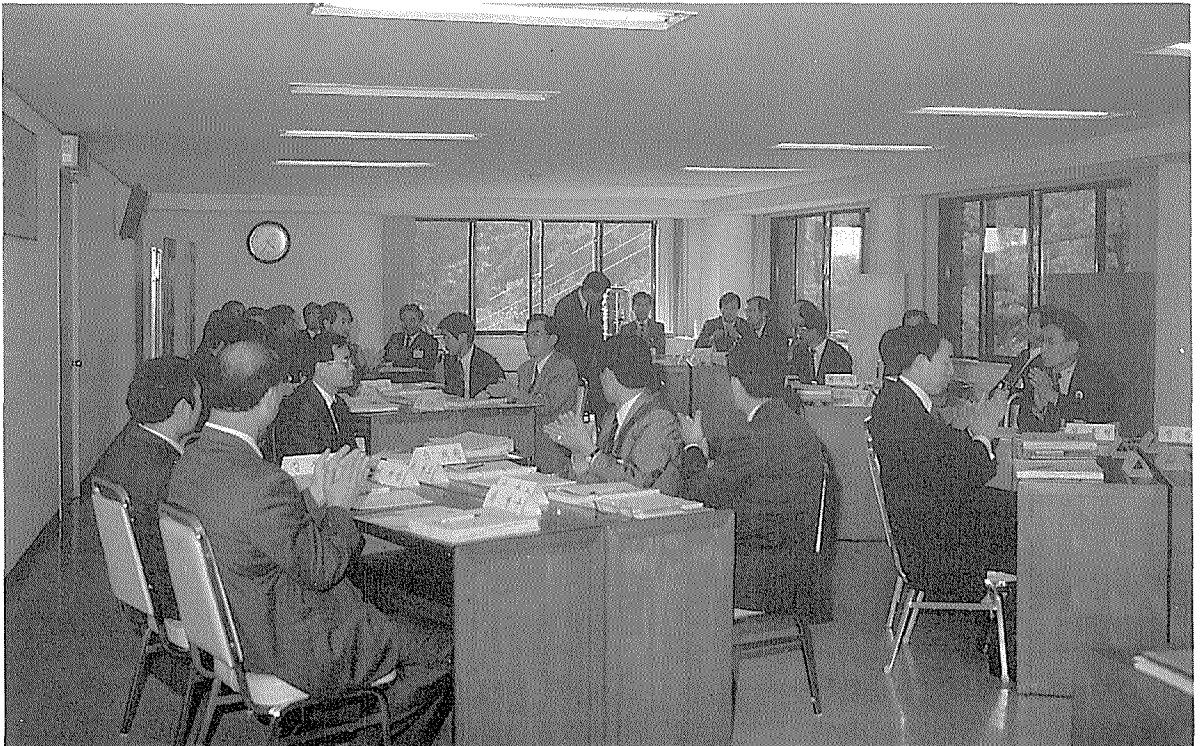


'93년의  
결산

현대정유

정사를 향한  
○○○○  
도약의  
7  
원년

전사업장 부서장급이상 경영전략및 기업문화 워크샵 실시



**올 한해는** 현대정유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는 여느때와는 달리 껍이나 많은 변화와 소용돌이를 느끼게 했던 특별한 해였다.

되돌아보면 금년초 신정부 출범과 함께 붙여닥친 사정한파와 신경제 100일계획, 그리고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실명제 실시등 기존 군사정부의 경제운용방침과는 그 맥을 달리하여 새로운 경제윤리관을 뿌리내려 보려는 문민정부의 노력을 우리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정유업계대로 품질과 서비스면에서 차별화정책을 구사하여 점점 경쟁관계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생산능력제도가 시장상황속에서의 시장점유율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망의 확충과 증설경쟁까지도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다가 지난 7월 1일 이후로 당사는 오랜 구각을 벗고 새롭게 현대정유로 태어남에 따라 기존 정유업계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여 정유업계의 지각변화와 함께 각사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고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려반 기대반의 목소리가 향간에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회사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주주간의 평행선은 소비적일뿐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으나 결론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다양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 난관의 긴 터널은 끝이 났고 넓은 광명의 길만이 우리들 앞에 남아 있을 뿐이다.

새롭게 들어선 신경영진은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신속한 제조치를 취하므로써 각 부문의 현안 문제점 해결과 장기전망을 포함시킨 계획을 재빠르게 수립, 조기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었다. 그래서, 6개월이 채 안된 현시점에서는 각 부문이 어느 정도 안정감과 방향 감각을 되찾은 듯 하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본다.

정유업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와 당사의 개별적인 문제를 구별하여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정유사공동의 현안으로서는 과거 정부규제라는 명분 아래 안주했던 업계의 위상이 금년말 6대 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유가자율화 연동제의 실시검토 등 정부의 간섭이 아닌 자율화의 방향으로 나아가 점점 자유경쟁체제로 그 위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즉, 공급위주의 시장여건이 수요위주 다시 말해 고객위주의 시장여건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사간의 품질경쟁과 고객유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져 결국 이것은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이윤은 감소되고 더구나 범국민적인 환경보호 요구에 따른 환경부담까지 원가에 반영되어 여러 모로 과거에 비해 정유공장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비용절감 노력은 공장자동화에 의한 인건비 감소로 감량경영을 이루려는 추세이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품질개선과 환경부담으로 인한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80년대에는 2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이 모두 폐업했고 '90년대에는 5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들이 폐업중에 있으며, 아마도 2,000년대에는 10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도 그 명맥을 유

지하기 어려워지리라 보여진다. 그러나, 모든 정유사들이 경제규모 이상으로 너도 나도 증설을 서두르게 된다면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지금의 석유화학시장과 같은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유사들은 무조건적인 경쟁으로만 치닫지 말고 상호협조속에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지금까지도 여러면에서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분위기를 지속시켜간다면 앞으로의 국제경쟁 대열에서도 결코 낙오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여기서 협조와 경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에서의 선의의 경쟁은 상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호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정유사간의 컨소시엄의 형태이든 공동투자의 연구기관(석유활성화 센타라든가)을 설립해서이건 대체에너지 개발하고 정부의 지원 아래 촉매 개발에 공동참여하는 등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데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정유사간 공동의 노력으로 힘의 분산을 막고 국가적으로 힘을 집중시키는 길 밖에는 없다고 보여진다.

모든 것이 자율화 되다 보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국외로 눈을 돌려 세계 굴지의 정유사들과도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리 중장기적인 기

술개발 투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 종업원의 환경개선과 안전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과 안전에 관한 투자가 기업의 사활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기업환경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해상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사고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정유사끼리 조업관련 환경과 안전문제에 대한 공방차원에서 상호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한편, 우리 현대정유의 입장을 보면 우리회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그 규모가 경제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고부가성의 휘발유 위주의 생산체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의 해결을 위해 금년 7월 1일 현대정유로 상호변경되자마자 고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년내로 2,000억원 이상증자를 이루기로 했고, '96년 7월을 완공 목표로 기본적인 경제규모의 확보와 휘발유의 기본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20만배럴 증설작업에 착수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증설이 완료되는 '96년이면 비로소 경쟁력을 갖춘 규모로 회사가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제시설의 확충과 고도화 추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과거처럼 사업성을 약속받지 못하는 투자여건속에서는 매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장점유율이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를 두자리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판매망의

확보가 요구되는데 주유소의 확보를 위한 투자는 타정유사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므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언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내부작업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전사업장에서 「하나로 '93 운동」을 전개해 전직원간의 화합과 혁신의지를 일깨워 회사의 번영으로 이끌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화합대회와 체육대회가 가졌다. 또, 9월중순과 10월중순에는 각각 충청지역과 전남지역에서 대고객 서비스개선 캠페인을 전개했고, 10월하순경에는 대리점 사장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판매력 증대를 위한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간담회와는 그 성격이 상이한 워크샵도 개최해 영업신장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기존의 간담회가 회사와 대리점 사장단간의 친목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데 반해 지난 10월의 간담회는 날로 치열해져 가는 시장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대리점 사장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의 판매력 증진방안을 모색하려는 현실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여기서 우리 현대정유가 진행하고 있는 3단계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3년 7월부터 '96년까지를 제1단계인 「도약의 단계」로 설정하고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여 총불입 자본금을 4,620억원으로 증가시

켜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이루고, 일산 20만배럴 증설을 '96년까지 완료하여 정제시설능력을 일산 31만배럴로 확대시키는 한편 현재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두자리수치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판매망의 확보에 있어서도 '95년말까지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른 매출액도 현재의 9천억원을 3배정도로 키워갈 예정이다.

또, '97년부터 '99년까지는 제2단계로서 「정상을 향한 성장의 단계」로 설정하고 종합에너지 회사로 향한 경영의 다각화와 획기적인 매출의 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단계인 2,000년 이후부터는 「정상진입 및 안정성장의 단계」로 보고 국내 정유업계의 정상을 차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회사의 모든 면을 확장시키는 시기로 설정하였다.

금년을 회고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새롭게 태어난지 6개월이 채 안된 현대정유는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현대'라는 상호에 걸맞는 회사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정유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주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의 변신을 꾀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새롭게 다가오는 '94년과 더 나아가 21세기는 바로 현대정유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

<대산본사 연구개발실 글기찬부장>